

## SDGs 미래도시 기타큐슈시

### 매연의 하늘, 죽음의 바다에서 기적의 부활

기타큐슈지역은 일본의 4대 공업지대 중 하나로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일본의 근대화와 고도경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의 번영은 심각한 공해를 초래했습니다.  
 1960년대, 기타큐슈지역은 국내 최악의 대기오염을 기록하였고 도카이만은 공장 폐수의 유입으로 죽음의 바다로 불렸습니다.  
 이러한 공해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대책을 요구한 사람들은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시민운동과 대중매체 보도를 통해 공해에 대한 사회 문제 의식을 높이고 기업과 행정에 공해정책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시민, 기업, 행정이 하나가 되어 움직인 결과, 환경은 급속도로 개선되어 1980년대에는 환경을 재생한 기적의 도시로 일본 국내외에 소개되었습니다.



### 세계로 뻗어가는 환경협력 네트워크

기타큐슈시는 우호도시인 중국 다롄시 등과의 환경 협력을 통해 세세한 관리와 지역 주민의 협력 활동 등 지역 사회 레벨의 국제협력의 유효성,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큐슈시는 활발한 도시 간 협력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 간 네트워크를 제안하고 실현해 가맹도시 간의 환경협력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각 가맹도시는 아시아지역의 환경선진도시 실현을 목표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SDGs 미래도시

본 시는 환경모델도시, 환경미래도시에 선정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를 견인해 왔습니다.  
 2018년 4월에는 OECD가 SDGs 추진을 위한 세계 모델 도시로 아시아지역 최초로 본 시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6월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SDGs 미래도시 및 SDGs 모델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타큐슈시는 일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산학관민이 연계하여 SDGs를 추진할 것입니다.

## 당신의 환경학습을 지원합니다.

<h4>환경학습서포터</h4> <p>환경에 관한 학습과 활동을 돕는 시민 봉사자입니다.              친환경 공작을 통해 환경에 대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p>	<h4>환경학습 콩세르주</h4> <p>시내 환경학습시설과 학습프로그램 등의 소개, 에코투어 기획 수립, 연수나 세미나 상담 등 다양한 환경학습을 지원합니다.</p>	<h4>출장 환경뮤지엄</h4> <p>당관의 스태프가 학교나 유치원, 보육원에 직접 찾아가 환경에 관한 실험이나 게임, 보호자 강좌 등을 진행합니다.</p>
---	--	---

● 환경뮤지엄 홈페이지 →

기타큐슈시인쇄물등록번호 제 1912021B 호

# 기타큐슈시 환경뮤지엄

## KITAKYUSHU ENVIRONMENT MUSEUM



※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2001년에 개최된 기타큐슈박람회 파빌리온으로 탄생한 이래 환경학습의 장, 환경 활동의 거점으로서 시내·외에서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환경뮤지엄.

공해 극복의 역사와 세계의 환경 문제, 우리 주변의 친환경 활동과 시민과 기업의 환경 활동 등을 보고 만지고 즐기며 학습하는 시설입니다.

SDGs 미래도시인 기타큐슈시의 역사를 배우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계기가 만들어 줄 수 있는 장소를 지향합니다.

### 3가지 기능

- 환경학습센터**  
학교 교육이나 사회 교육 등 환경 학습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식하고 배워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환경 리더 육성'을 지원합니다.
- 환경정보센터**  
NPO·기업·행정이 주최하는 환경 이벤트를 포함해 정부나 타 지자체, 세계의 정보를 발신합니다.
- 환경활동센터**  
시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여러 NPO나 시민 그룹의 활동거점으로 모임이나 미팅 장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9시 ~ 17시 (전시부분) ※입장은 16시 30분까지  
9시 ~ 19시 (정보 라이브러리·리유스코너 등)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17시까지
- 휴관일**  
월요일 및 연말연시



- JR이용**  
가고시마본선 스페이스월드역 하차, 도보 약 5분
- 버스이용**  
니시테쓰버스 히가시다오모리입구 하차, 도보 약 5분
- 도시고속도로 이용**  
기타큐슈도시고속 오타니IC에서 차로 약 5분

# 기타큐슈시의 환경학습 · 교류종합거점

## 프롤로그



후쿠오카현의 북부에 위치한 규슈의 현관 기타큐슈시는 북쪽은 히비키나다, 동쪽은 스오나다에 접해 있어 풍요로운 자연에 둘러싸인 도시입니다.

이러한 기타큐슈시의 풍요로운 자연을 사진과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 제1구역 기타큐슈시의 변혁

풍부한 석탄 배출량과 규슈 교통의 요충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오래전부터 번영했던 기타큐슈.

1901년, 야하타에 관영 야하타 제철소가 들어서면서 일본의 산업 근대화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실제 사용했던 석탄, 철광석 등의 원재료, 공업제품을 전시합니다. 또한, 기타큐슈시의 세계유산을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 제2구역 공해극복의 역사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기타큐슈시의 공해극복 역사를 소개하는 구역.

제조업 도시로서의 발전, 이를 통해 직면한 공해 문제.

협동을 통해 풍부한 자연을 되찾기까지의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 시민들이 시작해 기업·대학·행정이 공해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

### ■ 시민에 의한 공해 극복의 첫걸음



- 도바타지구의 부인회는 오염된 세탁물을 보고 대기오염을 걱정해 대학교수에게 조사방법 등을 배웠다.
- 이 결과를 토대로 시의회와 기업을 방문하는 등 활동을 전개했다.
- 8mm 영화 '푸른 하늘을 원한다'를 자체 제작해 계발 활동을 전개했다.

### ■ 기업 참여



-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었던 기업이 자원 절약, 에너지 절약형 생산 공정 전환(클리너 프로덕션 도입)을 통해 오염물질과 폐기물질을 많이 감소시켰다.
- 배기 가스 처리 및 배수처리 등 오염방지대책을 실시했다.

### ■ 행정 참여



- 공해 상황을 상시 감시하기 위해 공해감시센터를 설치했다.
-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도카이만을 준설했다.
- 공공하수도와 완충녹지를 정비했다.
- 기업과 공해방지협정을 체결했다.

## 제3구역 지구 환경과 우리

우리 생활 속이나 세계적인 경제 활동 시점 등에서 지구 환경 문제를 전달하는 구역.

전시를 통해 지구 구조나 지구 환경 현상을 직접 만지고 움직이면서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체험하고 느끼며 우리와 지구 환경 문제의 관계를 발견합니다.



## 제4구역 환경기술과 에코라이프

3R (Reduce, Reuse, Recycling)과 자원 순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구역.

기타큐슈시의 쓰레기 분리수거나 친환경 상품을 소개합니다. 또한 SDGs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방문객이 본인의 친환경 실천법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 제5구역 SDGs 미래도시 기타큐슈시

기타큐슈시가 하고 있는 환경 정책과 시민·단체·기업·학교의 환경 활동, 신에너지 등에 대해 사진 패널로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 기타큐슈 에코하우스

단열·기밀, 통풍, 자연소재 등의 '환경 기본성능 확보', '자연·재생가능에너지 활용', '에코라이프 스타일과 생활 방식'을 기본적인 골자로 하며, 가급적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생활을 목표로 하는 친환경 주택입니다.

일본 가옥 고유의 엔가와(縁側)나 도마(土間)부터 태양광발전과 V2H(연료전지 자동차에서 전기 공급), 수소연료전지 등 최신 친환경설비를 소개합니다.



상상력으로 걷는 지구 46억 년 역사.

## 기타큐슈 지구의 길



지구 탄생에서 현대까지 46억 년의 장대한 드라마를 460m 필드에서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는 지구의 길.

각본가 구라모토 소우가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후라노자연공원이 고안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특별한 체험형 환경학습 프로그램입니다.

규슈에서는 오직 이곳에서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 ■ 프로그램 체험 요금

성인/500엔(세금 포함)·고교생 이하/250엔(세금 포함)

※기타큐슈 시내 초·중·고교 사회견학이나 현장학습 등 학교행사로 참여할 경우 무료

### ■ 신청

전화 예약제 TEL:093-663-6751

※예약은 참가 3일 전까지 예약이 원칙

